



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라면을 살펴보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한 달 만에 2%대로 올라서며 지난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31로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뉴시스

“원재료비·환율·인건비 상승 물가에 반영”

》1면 ‘2%대 물가 재진입…’서 계속

다만 전기료는 0.4% 내렸다. 서비스 품목 중에서는 가전제품수리비(+25.8%), 보험서비스료(+16.3%), 공동주택관리비(4.3%) 등의 개인서비스에서 상승폭이 컸다.

박병선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가공식품 등의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전년대비 상승폭이 커졌다”며 “원재료비 인상, 환율 상승, 인건비 상승 등이 (가공식품) 물가에 순차적으로 반영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산물론 바다 수온이 높아져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고등어, 조기, 오징

어 등에서 올라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임혜영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물가 상승률이) 수치상으로는 2% 내외의 흐름을 유지 중이지만 누적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있어서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생계비 부담과 체감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고 계속 물가 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추가경정예산이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기가 어렵고 내수가 부진한 상황이라, 추경으로 인한 상승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코인투자 유도 ‘로맨스 스캠’ 주의보

금감원,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SNS·앱에서 외국인 가장해 접근

최근 SNS와 데이팅 앱 등을 통해 외국인으로 위장한 사기범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일본, 태국 등 외국인으로 가장해 SNS·데이팅 앱에서 접근한다. ‘한국 여행을 준비 중인데 여행지나 음식 추천을 받고 싶다’는 식으로 말을 건다. 이후 유명 인물루터서의 사진을 도용하거나 변호사, 전문 투자자 등 전문직 종사자로 신분을 위장해 피해자와 신뢰를 쌓는다.

이들은 장기간 일상 대화를 이어가며 호감을 표시하고, 결혼이나 자녀 계획 등 미래를 함께 그리는 발언으로 감정적으로 몰입하게 만든다. 이런 과정을 통해 피해자의 마음을 얻은 뒤, 유망한 가상자산 투자처를 소개하겠다고 가상자산거래소가 입과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이다.

투자 초기에 소액을 넣으면 짧은 시간 내 수익이 난 것처럼 꾸며 보여

주고, 점차 큰 금액의 투자를 유도한다. 이후 출금을 하려면 ‘세금을 내야 한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의심하거나 돈이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이면 돌연 연락을 끊고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인 수법이다.

금감원은 “이들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호감을 표시하거나 결혼, 미래를 언급하면서 심리적으로 조종한 뒤 투자로 연결시키는 특징이 있다”며 “SNS나 데이팅 앱에서 낯선 외국인이 이처럼 접근하면 로맨스 스캠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망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라며 가입과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이는 대개 불법 사이트이며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영업 행위 자체가 특정 금융정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투자 전 반드시 사업자 등록 및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집중 홍보 캠페인과 소비자 예방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허정원 기자 zelkova@

아파트 착공실적 5년래 최저수준 하반기엔 더 줄어 ‘주택공급 비상’

국토부, 서울 등 7곳 착공 최저
서울 최근 1년 2만여 가구 불과
강원 전년대비 40% 줄어 5459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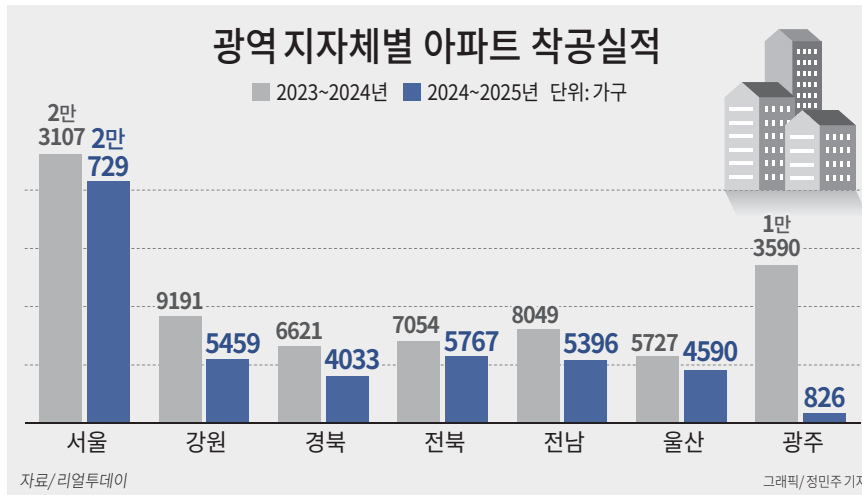
최근 1년간 서울의 주택 착공실적이 5년래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아파트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2일 국토교통 통계누리의 주택건설 실적(착공)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서울 ▲강원 ▲경북 ▲전북 ▲전남 ▲울산 ▲광주 등 7곳이 최근 1년간(2024년 6월~2025년 5월) 아파트 착공실적이 5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의 최근 1년간 착공실적은 2만 729가구에 그쳤다. 2021년 5월~2022년 4월 5만 2972가구에서 ▲2022년 6월~2023년 5월 3만 6468가구 ▲2023년 6월~2024년 5월 2만 3107가구 등으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서울·경기와 접근성이 좋아 수도권 외곽 주거 수요를 흡수하는 강원 역시 착공실적이 5459가구에 불과했다. 전년 9191가구 대비 40% 이상 급감했다.

부동산리서치업체인리얼투데이관계자는 “조기 대선으로 예기치 못했던 정국 불안이 해소됐지만 하반기에도



여전한 내수 부진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착공실적은 더 줄어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5월(잠정) 건설공사비 지수는 131.01으로 2020년(100 기준) 대비 30% 이상 상승했다. 시공사와 지자체, 조합 간의 공사비 갈등도 사업 지체와 착공연기에 영향을 미쳤다.

공급 부족과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겹치면서 하반기에 공급되는 분양 단지에 대해 관심이 더 쏠릴 것으로 보인다.

롯데건설은 이달 서울 송파구 신천동 일원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를 재건

축해 짓는 ‘잠실 르엘’을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84~126㎡, 총 1865가구 가운데 216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온다.

춘천에서는 동문건설(시공), 씨엔위(시행위탁)가 동면 일원에 ‘춘천 동문 디 이스트 어반포레’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59~84㎡, 총 569가구로 공급된다.

한화 건설부문은 울산 남구 무거동 일원에 한화캐미칼 사택 부지를 재개발해 짓는 ‘한화 포레나 울산무거’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84~167㎡, 총 816가구 규모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압구정=현대’ 공식, 3구역서도 통할까

삼성물산, 압구정 2구역 수주 발빠
현대건설서 단독입찰 가능성 커져
삼성, 핵심 승부처 ‘압구정3’ 올인

서울 압구정2구역 시공사 수주전은 현대건설의 단독 입찰 가능성이 커지며, 경쟁 없는 무혈입성이 유력하다. 무난한 승리가 점쳐지지만, 한남3·4구역 사례처럼 이 같은 결과가 오히려 다음 구역 수주전에서는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같은 브랜드가 인접 구역을 연속 수주할 경우 차별성 부족 등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것이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압구정3·4구역에 대한 사업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자사 브랜드 전시관인 ‘S.라운지’를 통해 정비사업 대응 전략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S.라운지는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인근에 개관된 프라이빗 라운지로, 초고층 모형과 주거 설계 철학 등을 전시하는 공간이다. 삼성은 이 시설이 특정 구역 전용이 아닌 압구정 일대를 위한 공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압구정2구역은 신현대 9·11·12차를 포함해 2571가구(최고 65층)로 재건축되는 초대형 사업지다. 공사비만 약 2조 7488억원으로, 올 초 수주전이 진행된 한남4구역(약 1조 6000억원)을 크게 웃돈다. 조합은 오는 8월 입찰을 마감하고 9월 27일 시공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압구정2구역을 현대건설이 무난히 수주하더라도 압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압구정 3구역 조감도.

/서울시

구정3구역에선 조합 내 이견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압구정3구역은 단순 재건축을 넘어 브랜드, 사업성, 상징성이 맞물린 핵심 승부처다.

압구정3구역은 약 39만㎡ 부지에 현대1~7차, 10·13·14차와 대림빌라트 등 총 3934가구를 포함하는 대규모 재건축 구역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에 제출된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해당 구역은 최고 70층, 총 5175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약 7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압구정 재건축 수주전 구도는 올 초 진행된 한남3·4구역 사례와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남3구역을 수주한 현대는 올해 초 한남4구역에서도 우세할 것으로 평가됐지만, 최종 승자는 삼성이었다.

당시 현대는 조합 책정액보다 868억원 낮은 공사비와 함께 사업비 전액 양도성에금증서(CD)+0.1% 고정금리 조달 및 지급보증, 한강 조망 인피니티풀 등 초호화 커뮤니티 시설을 제안했다.

그러나 조합 내부에서는 “현대건설이 또 수주하면 우리는 한남3구역의 2단지로 전략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다. 실거주보다 투자 비중이 컸던 한남4구역 특성상 브랜드 신뢰와 자금 운용 능력에서 삼성이 최종 선택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엔 ‘압구정=현대’라는 공식이 통했지만 요즘은 브랜드 다양성에 대한 기대도 높다”며 “오히려 2구역을 가져간 현대가 3구역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지원 기자 jjw13@